# 모형이 놓친 것들

관심사 심층 독해 - 2026년 10월 20일자 피드 · 2026년 10월 21일 아침

> 어제 19개 피드에서 올라온 새 글 17편을 전문 독해하고, 그중 9편을 골라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부터 새 피드 구성(EerdWord·Cafe Hayek·Retraction Watch·Dan Luu)이 적용됐습니다.

어제의 경제 글들은 묘하게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통화정책 모형, 이민의 재정 효과를 재는 모형, 부유세 수입을 추정하는 모형 - 셋 다 결론이 '모형 밖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이 무엇인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 준 글은 160년 전 멜버른 조폐국의 금괴 이야기였습니다.

## 1. 점성술에 수여된 노벨상 - Michael Roberts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로버트 홀과 마이클 우드퍼드에게 돌아간 것은 지난주 확인한 사실입니다(nobelprize.org). 어제 Roberts가 올린 비판 「Prizes for moving the economy」는 이 상의 이론적 토대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우드퍼드의 『Interest and Prices』(2003)의 중심 명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자연금리'(R*)에 대비해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Roberts는 두 가지 근본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R*는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계의 기대는 과거 인플레이션과 체감 물가, 정치적 성향에 좌우될 뿐 중앙은행 발표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설득력은 그가 모은 중앙은행가들의 고백에서 나옵니다(저자의 선별 인용임을 밝힙니다). ECB의 슈나벨은 R*가 "어떤 신뢰성으로도 추정할 수 없어 운용하기 극도로 어렵다"고 인정했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카시 카리는 주력 모형들이 팬데믹 이후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파월 전 의장은 중립금리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 러드는 기대 중심 통화정책이 "극도로 흔들리는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드퍼드 자신도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세계화가 진전돼도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통제력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Roberts의 결론: 신케인스주의의 항해 도구는 천문학이 아니라 점성술이며, 홀과 우드퍼드에게 준 상은 점성술에 준 상이라는 것입니다. 케인스와 마르크스가 '자연'금리 자체를 부정했다는 그의 지적 - 화폐와 금리는 생산·유통 과정에 내생적이라는 - 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관심 있는 특히 와닿을 대목입니다.

## 2. 금화는 왜 멜버른에서 뭄바이를 거쳐 런던으로 갔는가 - Hannah Forsyth

Crooked Timber에 역사학자 Hannah Forsyth가 올린 「Turns out the Melbourne Mint was about Gold for India」는 어제의 최고 수확입니다. 저자가 빅토리아 공공기록보관소의 멜버른 조폐국 문서에서 찾아낸 회로는 이렇습니다. 호주 쿨린 민족(Kulin nation)의 땅에서 캐낸 금이 멜버른에서 금괴로 주조돼 뭄바이와 콜카타의 은행들로 팔립니

다(문서에는 수백 개 금괴 주문서와 은행 도장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은행들은 그 금을 곧바로 런던의 인도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팝니다. 그 대가로 받은 'Council Bill'(1862년 도입)이 루피로 바뀌고, 그 루피로 목화를 삽니다. 멜버른에서 비싸게 산 금을 런던에서 싸게 파는, 겉으로는 비합리적인 왕복 운송입니다.

왜 이런 회로가 필요했을까요. 1861년 미국 남북전쟁으로 인도 면화 수요가 폭등하면서 은화가 부족해졌고(은 러시), 인도는 은본위였기에 루피가 없으면 목화를 살 수 없었습니다. 런던 의회가 인도의 금본위 전환을 거부한 이유를 경제학자 수난다 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 1844년 필 법령 때문에 파운드 공급은 금 보유에 묶여 있었고, 영국 재무부는 자국의 금이 줄어들까 우려했습니다. 결국 루피 공급은 인도가 식민지로서 강제 납부하던 'Home Charges'(식민 통치 비용)에 연동됐고, 금의 이중 왕복은 제국의 공납을 세계 금융으로 세탁하는 장치가 됐습니다.

이 글의 이론적 골자는 최근 별세한 Perry Mehrling의 'money view'입니다. 자본주의는 '사물'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들"이며, 그 단계들이 인간·사물·동물 사이의 관계를 계속 다시 주조한다는 것. 1861년의 병목은 목화 생산이 아니라 동전이었습니다.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모형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풍경이고, 1번 글의 자연금리 논쟁과 정확히 대칭을 이룹니다.

## 3. 모형에 무엇을 넣느냐 - 이민 재정 효과와 캘리포니아 부유세

Marginal Revolution이 같은 날 소개한 NBER 작업논문 두 편이 이 주제의 현대판입니다. 첫째, Battisti·Peri·Romano의 이민 연구(NBER w35901, 실재 확인)는 노동시장과 재정 경로를 일반균형 모형에서 통합했습니다. 2019~2024년 도착자와 같은 숙련 구성의 이민 유입이 1%p 늘면 17개 OECD국 중 14개국에서 토박이 후생이 오르고, 저숙련 토박이는 주로 세전 소득 증가(고용 창출·숙련 이민과의 보완성)로, 고숙련 토박이는 주로 노동세 부담 완화로 이득을 봅니다. 어느 한 경로만 모형에 넣으면 누가 왜 이득을 보는지 불완전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저자들의 교정·추정치). 단, Cowen은 저자들의 메커니즘 - 이민자가 생산성 대비 저임금이라 그 잉여를 토박이가 흡수한다는 주장 - 에 동의하지 않고, 시장 규모 확대와 수확체증·혁신이라는 자신의 메커니즘을 대안으로 둡니다. 이 구분은 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둘째, Jaros·Rauh의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2026 Billionaire Tax Act, 세계 자산 10억 달러 초과분에 1회 5%) 분석(NBER w35899, 실재 확인)은 반대 방향의 사례입니다. 행동 반응을 넣으면 예상 세수는 약 300억 달러(범위 280~360억)로 Galle 등이 전망한 1,000억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미 공개 확인된 납세자 이주만으로 과세 기반의 30% 가까이가 사라졌고, 떠나간 억만장자들의 주 소득세(연 33~58억 달러) 손실의 현재가치가 1회성 부유세 세수를 넘어 순현재가치 -389억 달러, 10만 회 시뮬레이션의 85%가 마이너스라는 추정입니다(저자들의 계산). 흥미로운 건 같은 날 Cafe Hayek(새 피드)도 이 초록을 인용했다는 점 - Boudreaux는 여기에 관세 논쟁(Puri 대 Dougherty: 관세는 외국

정책 왜곡을 상쇄하지 못하며, 수십 년 보호받은 미국 조선·철강·설탕 어느 업종도 국제가격 아래로 내리지 못했다는 실증)을 곁들였습니다. 두 논문 모두 결론이 '모형에 무엇을 포함했는가'에 달렸다는 점에서 2번 금화 이야기의 현대 버전입니다.

## 4. 아는 것의 두 종류 - Dreyfus의 AI 비판, 다시

Leiter Reports가 소개한 글은 Hubert Dreyfus의 초기 AI 비판과 그 후일담을 정리한 에세이입니다. Dreyfus는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에서 출발해, 디지털 컴퓨터 언어로 지능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인간 정보처리의 세 가지 근본 형태 - 주변의식(fringe consciousness), 본질/우연 구별, 모호성 감내 - 을 체계적으로 배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구분한 네 가지 지능 활동 중 프로그래밍 가능한 것은 두 가지뿐이었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컴퓨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론적 뼈대는 Gilbert Ryle의 'knowing-that'(규칙으로 쓸 수 있는 지식) 대 'knowing-how'(말로 풀 수 없이 몸으로 하는 능력) 구별입니다. 목수가 망치를 잡을 때 물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 않는다는 하이데거적 직관이죠. Leiter의 평은 "이 지점들이 지금도 유효하다"입니다. LLM이 '아는 것'의 어느 층위를 흉내 내고 있는가 - AI 평가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이 60년 된 질문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 5. 아직 교과서가 없는 수업 - Aaronson의 AI Alignment 강의

Scott Aaronson이 UT Austin에서 이번 학기 새로 여는 'AI Alignment Theory' 강의의 읽기 목록과 학생 rapporteur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표준 교과서도 합의된 수학적 이론 체계도 없는 분야라, 강의는 인문학식 토론 세미나처럼 운영됩니다 - 학생이 읽기 자료 하나를 발표하고 전원이 토론하는 방식. 목록 자체가 분야의 지도입니다: Yudkowsky의 「AGI Ruin」(2022), Amodei 등의 「Concrete Problems in AI Safety」(2016), Ngo·Chan·Mindermann의 정렬 문제 서베이, Omohundro의 「Basic AI Drives」(2008), Turner 등의 권력 추구 정리(2023), 수정 가능성(corrigibility)과 오프스위치 게임, 백도어 방어 암호학 논문들, 그리고 2026년 것으로 Dario Amodei의 「We Must Pace the Frontier」와 OpenAI/HuggingFace 사건 관련 Mowshowitz·Dwarkesh Patel·METR 보고서 묶음까지. 평가 기준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분야의 실시간 스냅샷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 6. 새 피드의 첫 기사 - 41편 철회의 연구자

Retraction Watch가 새 피드 구성 첫날부터 실체가 있는 사건을 전했습니다. 일본 국립재료과학연구소(NIMS)가 9월 29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번역본 인용)에 따르면, 금속 부식 연구자 Joseph Raj Xavier의 논문 7편에서 SEM·AFM 등 현미경 이미지의 날조와 변조 - 그림 재사용, 늘이기·회전·오려붙이기 흔적 - 이 "고의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23편 중 6편(2014~2017년)은 자기표절이었고, 타 기관 소속으로 낸 15편도 NIMS 재직 중 그림을 부당 전용했을 "극도로 높은 가능성"이 인정됐

습니다. Xavier의 철회 논문은 총 41편(올해만 10편)으로 Retraction Watch 리더보드에 올랐고, 피인용 4,000회 중 3분의 1이 자기인용입니다. 조사 면담 통보 후 연락을 끊었고, 지도교수 Nishimura는 고의는 없었으나 퇴직 후 6편에 본인 동의 없이 공저자로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pringer Nature(4편)와 Elsevier(2편)가 조사 중이고, 학계 내부 고발(PubPeer → 연구부정 신고전화)이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구 검증 피드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첫 보도입니다.

## 7. 알고리즘을 떠나 우편함으로 - Todd Webb 인터뷰

The Comics Journal의 5만 5천 자 인터뷰는 인디 만화가의 노동 경제학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Todd Webb는 일일 연재물 「The Poet」를 6년간 무료로 온라인에 올렸지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더는 보여주지 않게 되자 'The Poet Quarterly'라는 24쪽 구독 전용 실물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가 소수여도 자립 가능하고 첫해 비용은 이미 충당됐습니다. 신문 신디케이션 진출은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 "이제 와서 제3자에게 한 조각을 넘길 이유가 없다". 대신 만화만 싣는 신문 Ducktown Weekly에서 Peanuts 바로 옆에 실리게 됐고(비신디케이트로는 유일), 독자들이 공원 벤치 사진을 보내는 'The Park Bench Appreciation Society' 코너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생계는 Etsy 프린트 판매가 버텨 줍니다. 존 케이지의 주역 동전 던지기 작법을 만화에 옮긴 「Chance Operations」, 25주년 『Goldfish and Bob』 재간 준비 같은 작업 얘기도 풍부합니다. 플랫폼의 배포 모형 밖에서 자기 회로 - 우편 구독 - 를 직접 짠 사례로, 2번의 금화 회로와 같은 구조입니다. 노동·만화 비평 관심사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 반드시 읽을 링크

1. **Michael Roberts, 노벨상 비판** -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6/10/20/prizes-for-moving-the-economy-in-the-right-direction/
2. **Hannah Forsyth, 멜버른 조폐국과 인도의 금** - https://crookedtimber.org/2026/10/19/turns-out-the-melbourne-mint-was-about-gold-for-india/
3. **Battisti·Peri·Romano, 이민의 재정 효과 (NBER w35901)** - https://www.nber.org/papers/w35901
4. **Jaros·Rauh, 캘리포니아 부유세 (NBER w35899)** - https://www.nber.org/papers/w35899
5. **Leiter가 소개한 Dreyfus AI 비판** - https://leiterreports.com/2026/10/20/hubert-dreyfuss-attack-on-ai-relevant-again/
6. **Aaronson, AI Alignment 강의 읽기 목록** - https://scottaaronson.blog/?p=10204
7. **Retraction Watch, NIMS 조사 보도**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19/joseph-raj-xavier-national-institute-materials-science-saveetha-retractions-extensive-manipulation/
8. **Todd Webb 인터뷰 전문** - https://www.tcj.com/todd-webb-interview-a-journey-in-search-of-peanuts/